

# 너를 사랑

MARSA KOREA | 2018 12  
MAGAZINE 제10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새해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해양구조협회

# D&B



**parkdock**

수상조립식계류시스템



THE ULTIMATE  
**MARINE ECO-SYSTEM**

# D&B

(47543)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72

Tel 82-51-746-8456

M.P 82-01-3865-9387

Fax 82-51-746-8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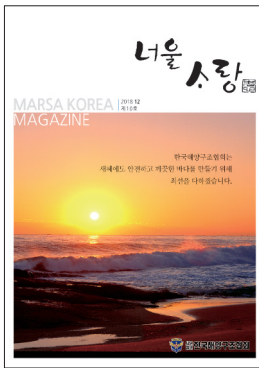
E-mail [dnb9387@gmail.com](mailto:dnb9387@gmail.com)(Korea)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18 12  
제 10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8년 12월 26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 너를 사랑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  
 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  
 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  
 협회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 CONTENTS

### Special Theme

- 04 신년사 한국해양구조협회 신정택 총재
- 06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08 총재동정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의 날' 개최

### MARSА News

- 09 본부 뉴스
  -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 협회-해양경찰, 민·관 해양구조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 3)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구조협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4) 2018년 수중수색구조 협력기관 현장 합동훈련 FTX
  - 5)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사전교육 1기 수료식
  - 6)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10
- 12
- 13
- 14
- 16
- 17 지부·지역대 뉴스
  - 1) 장흥구조대, 장흥군으로부터 순찰차 지원
  - 2) 영덕구조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작업
  - 3) 통영구조대, SBS '빅픽처 패밀리' 주말예능 출연
  - 4) 전국 구조대 구조·구난 소식
  - 5) 울산지부,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 참가

### MARSА Story

- 22 안전을 부탁해 대국민 심폐소생술 캠페인
- 24 환경을 부탁해 특별한 이웃들과 함께하기  
\_ 경남서부지부, 1년간의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 MARSА Info

- 26 국내뉴스
  - 1)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한다
  - 2) 해수부, 해양오염 평가·진단 정확성 높인다
  - 3) 해수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수립
  - 4)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 MARSА Notice

- 31 협회교육안내
  - 1) 2018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 2) 2018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 3) 2018년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 32
- 33
- 34 협회후원안내

총재 신년사

#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가족 여러분!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신 정 택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무술년 한해가 가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협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부와 건강을 상징하고 또 꿈속에 나타나 주길 희망해 왔던 돼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동물입니다. 우리 모두 돼지꿈의 소망을 품고 목표를 향해 정진함으로써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2018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세종에서 인천으로 복귀하였고, 지난 12월 7일에는 우리의 숙원이던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조현배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신의 역할을 다해주신 장흥구조대 김성필 대장님과 우리협회 모든 회원들의 소망이 한데 어우러져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바다를 사랑하는 해양가족 여러분!

저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하면서도 당초 희망했던 개정안 보다 다소 후퇴한 법조항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개정의 효과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개정 법률을 지렛대 삼아 우리협회가 명실상부한 해양구조전문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새해의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먼저, 수상구조사 시험 등을 해양경찰로부터 우선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밖에도  
위탁업무 발굴을 위해서 관계 당국 및 지자체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스킨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간해양  
구조세력이 통일된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하는데 유의미한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적업무인 ‘구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협회를 가칭)수상구조안전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등 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  
겠습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옛 성현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바람  
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해  
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 원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해양경찰청장 신년사

# 존경하는 구조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여러분!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세밑에 이르러 한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해양경찰과 구조협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은 지난해 7월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로 다시 독립하였고, 올해 11월에는 세종을 떠나 보금자리인 인천으로 환원 되었습니다. 이는 구조협회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해양경찰은 새로운 각오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해양경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바다안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구조협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양경찰과 구조협회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지난 12월7일 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성화 내용이 담긴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조협회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협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조현장에서 해경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던 구조협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민간해양구조 선진화를 위해 구조대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교육·훈련을 협회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추진 할 것이며, 또한 구조대원 활동복 지급, 보험가입 등 지급 보다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활한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 조난사고는 국가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에서는 민간구조 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구조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구조 세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그 동안 국가재정 지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 구조 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신정택 총재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해양경찰과 함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한해도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조 현 배

총재동정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 기념촬영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신정택)는 지난달 지난 11월 30일 부산 영도구 목장원 4층 연회장에서 '2018년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을 개최하였다.

2008년 12월 탄생해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의 지난 10년간의 성장과정과 회원들의 활동을 돌아보며, 아너소사이어티의 나눔을 통해 부산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공동모금회(UWW) 아태지역 양후영 사무국장이 참석해 '2018 캐나다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공유하며, 2019년 부산 지역의 아너소사이어티의 활동계획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공동모금회는 이날 부산 아너소사이어티가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착에 힘쓴 신정택 총재(100호)와 박기대 해물왕창칼국수 대표(133호)에게 '올해의 아너 상'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러닝플러스 (주)변희자 대표(부산여성벤처협회장)가 부산 151호 아너회원로 가입하였다.

신정택 총재(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는 "아너 회원 한 분 한 분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에는 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무 범위나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봉사자들은 해양사고현장에서 구조·구난 활동에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등 모든 것은 고스란히 봉사자들의 몫이었으며 이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해상사고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2007년 978척, 2017년 3천160척),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해상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법안 개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농해수위, 법사위를 거쳐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아래 「수상구조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같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④ (생략)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 설> 1. ~ 6. (생략) 7. 수색구조·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8. (생략) <신 설>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 1. 수색구조·구난 업무 지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8. ----- 관리 및 교육·훈련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생략) ②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 (생략)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윤준호 농해수위원이 제안 설명하고 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협회-해양경찰, 민·관 해양구조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난 12월 17일, 우리협회와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단체기념사진

이번 워크숍에는 신정택 총재,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하여 협회 대원, 민간해양구조대원, 해경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해양경찰의 '민간구조세력 활성화 추진 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본회 김윤섭 교육연구본부장의 '실질적인 민간해양구조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각 지방청 구조계장들이 지역의 '민·관 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김인창 수색구조과장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

해 협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문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의무화, 복지·훈련 등의 예산 증액, (가칭)수상안전관리공단과의 통합 추진 등의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점차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다. 해양사고에 대비해 민간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한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2019년은 민간해양구조 세력 선진화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민간해양구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정택 총재는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개무량하면서도 법개정의 효과를 어떻게 봉사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민간해양구조세력으로서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 등을 해양경찰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1년간 해양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개인(김향복씨, 김무남씨) 및 단

체(장흥구조대, 포항구조대)에 대하여 ‘2018 바다의 인상’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장 표창에 개인3, 단체1, 감사장에는 개인2명이 수상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황주홍 의원) 표창에는 장흥구조대장 외 13명의 대원들이 수상하였다.

한편, 우리협회 신정택 총재는 지난 12월 7일 수상구조법 개정안 통과시 국회에서 상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수색구조과 김지한 계장(경정)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바다의 의인상 수상(개인 및 단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



▲ 해양경찰청장 단체 표창장(부산지부)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총재 감사패 전달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구조협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모습

지난 11월 16일, 우리협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과 함께 구조협회 활성화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해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구자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서해해경청장)을 비롯하여 서해청 관내 전남서부, 전남동부, 전남남부, 전북북부, 전북남부지부 협회장 및 구조대장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구조협회의 올해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해난사고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강화와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되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는 바다 종사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해양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성필(장흥구조대), 신도(전남동부지부), 박종문(장흥구조대), 장재구(전남서부지부), 김동영(전북남부지부), 김종승(군산구난대), 전전심(전북북부지부) 등 총 7명의 회원들이 서해해경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감사장 수여



▲ 기념촬영



# 2018년 수중수색구조 협력기관 현장 합동훈련 FTX



▲ 훈련종료 후 기념촬영

지난 11월 15일, 우리협회는 부산 목도 인근 해상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과 함께 「해경·한국해양구조협회 특수구조 협업강화를 위한 수중수색구조 합동훈련(FTX)」을 진행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협회 구조대원 35명(본회, 부산지부, 울산지부), 해경 중특단 40명 등 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잠수지원함 1척, 고속단정 1대, 스쿠버장비 20대가 투입되었다.

훈련은 협회와 중특단이 합동 팀을 이루어 수심 10m, 20m, 30m 등 단계별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수중 적

응 및 매듭법, 수중 익수자 탐색, 부력유지용 리프트백 등을 이용한 모의 사고선박인양 훈련 등을 진행하였다.

금번 훈련은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해경과 협회 간의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합동훈련을 통하여 사고 현장에서 보다 완벽한 수중수색구조 협업체계를 구축하

## MARSA NEWS | 본부 뉴스 |

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팀워크 및 개인 스킬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기관의 수중 수색 기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훈련 강평을 통해 박종철 중특단 단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해양 인명구조역량을 강화하고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여 해양사고 구조 활동 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수중수색구조 훈련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사전교육 1기 수료식

지난 10월 21일, 우리협회는 부산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사전교육 제1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수상구조사는 지난 2016년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역량강화를 위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기관만이 수상구조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협회를 포함한 21개의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이 가능하다.

우리협회는 현재 수상구조사 전문교육을 위해 국제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각 지역의 체육관리시설 4곳(수

원월드컵경기장 내 수영장,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남부대학교내 국제수영장, 서울반포(일반·요트)면제교육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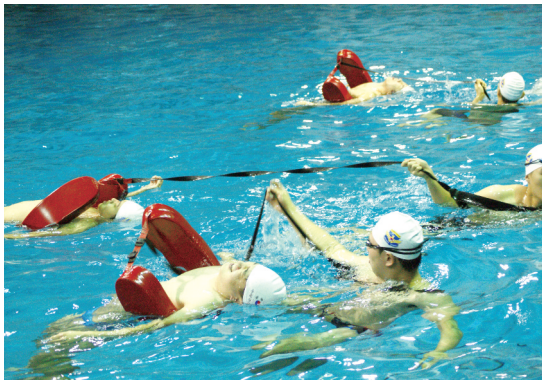
금번 교육은 사전평가(자유형 50m, 평영50m, 잠영 25m, 입영 3분)를 통과한 수강생들에 한하여 총 64시간의 고강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 기념촬영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본회 민흥기 이사장은 “어렵게 교육을 이수한 만큼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국가자격’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국민들의 안전확보 및 구조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교육 강사 및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혜택 등이 주어진다.



▲ 수상구조사 교육 중인 수강생들



▲ 민흥기 이사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는 김의영 학생장

##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10월 21일, 우리협회는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강의실에서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육연구본부장이 참석하였고,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는 김민수 이사장을 비롯한 5명의 이사진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수상구조, 인명구조, 응급처치, 생존수영에 관한

선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해양구조전문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민흥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앞으로 해양구조전문가 인재육성에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 김민수 이사장과 우리협회 민흥기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장흥구조대, 장흥군으로부터 순찰차 지원

## ...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긴급자동차 지정도

지난 10월 24일, 우리협회 장흥구조대는 장흥군으로부터 순찰차를 지원받았다.



긴급자동차지정증			지정번호
①성명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구조대	②주민(법인)등록번호	2211
③주소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474	④자동차종류	소형화물
⑤차명	그랜드 스타렉스	⑥형식	
⑦자동차등록번호		⑧완동기번호	
		⑨용도	해난긴급출동

위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 장흥군에서 지원받은 순찰차

▲ 긴급자동차지정증

장흥구조대는 장흥군 내 회진, 내저, 용암, 노력도, 대리, 신상 등 지역을 분담하여 3명이 한 조를 이뤄 매일 야간 순찰대를 운영한다. 대원들은 현장에 있는 낚시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 등을 알려주고 현장사고에 대비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장흥구조대의 공로를 인정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장흥군 관내의 해양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순찰차를 지원하였다.

한해 수십 건에 달하는 해양사고 구조 활동에 나서는 장흥구조대는 순찰차 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 구급약품, 잠수장비, 레스큐튜브 등을 비치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구비하였다. 이에 지난 11월 15일에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긴급자동차로도 지정받아 응급상황 시 좀 더 빠른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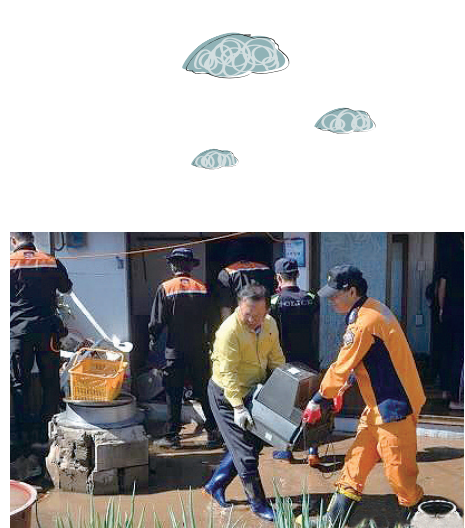
장흥구조대 김성필 대장은 “최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밤 낚시객들이나 어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 우리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듣는다. 뿌듯하면서도 더욱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대원들과 함께 장흥군 내 해양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부터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영덕구조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작업

지난 10월 7일, 우리협회 영덕구조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극심한 경북 영덕군에서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하였다.



▲ 피해지역을 살피고 있는 영덕구조대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복구작업 중인 대원들

영덕군은 지난 10월 5일과 6일에 걸친 태풍의 내습으로 주택 및 도로가 침수되고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며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영덕구조대는 약 7일간 매일 20명의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투입 시켜 재산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복구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태풍에 대비하여 항 내 정박해 놓았던 어선들이 한꺼번에 떠내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유실된 어선들을 찾는 수색작업도 함께 펼쳤다.

7일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복구작업에 성실히 임해준 영덕구조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영구조대, SBS '빅픽처 패밀리' 주말 예능 출연



▲ 방송촬영 후 기념촬영

지난 10월 6일, SBS 주말예능 '빅픽처 패밀리'에 우리협회 통영구조대가 소개되었다.

'빅픽처 패밀리'는 차인표, 박찬호, 우효광, 류수영 등 4인이 MC를 맡고 있으며 '살며, 찍고, 나누는, 인생샷'을 콘셉트로 삼아 4명의 MC들이 전국 각지에 사연들을 찾아 인생 사진을 남겨주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우리협회 통영구조대는 7월부터 8월까지 44일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비진도, 사량도, 공설 등 해수욕장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덕분에 올 한해는 관할 해수욕장에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 구슬땀을 흘리는 통영구조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SBS 제작진은 하계인명구조센터 해단식에 맞추어 인생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MC 박찬호, 우효광과 함께 비진도를 방문하였다. 방송에는 인명구조요원 전문자격을 보유한 대원들이 직접 인명구조 훈련을 시범하였으며 MC들과 게임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제주석 통영구조대장은 "정규방송에서 구조대의 활동 등이 소개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촬영에 임했다"며 "방송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젊은 구조대원들의 지원이 점점 더 늘기를 바라며 언제나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방송 출연 모습

## 전국 구조대 구조 · 구난 소식

### | 경남서부지부, 고성 갯벌에서 낙지 잡던 마을이장 실종 수색작업

지난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경 병산마을 이장 A씨(58)가 고성군 삼삼면 병산마을 앞 갯벌에서 낙지를 잡다 실종된 사고가 일어났다.

낙지를 함께 잡던 친형 B씨는 오전 3시 22분께 동생 A씨가 보이지 않자 통영해경으로 신고를 하였다. 통영해경으로부터 수색 지원 요청을 받은 경남서부지부특수구조대는 김태정 대장을 비롯하여 6명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색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일 3차 수색 끝에 오후 4시경 경남서부지부특수구조대 김태군 대원에 의해서 바닷물 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양하였다.



▲ 통영해경과 수중수색 작업 중인 경남서부지부특수구조대원들

### | 포항구조대 · 경북특수구조대, 포항시 반곡 저수지 실종자 수색작업

지난 10월 6일 신광면 기일리 소하천에서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불어난 물에 독길이 무너지면서 70대 이모씨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 반곡 저수지 실종자 수색작업중인 포항구조대 · 경북특수구조대원들

수색작업이 길어지면서 10월 10일, 소방당국은 우리 협회 경북지부에게 수색지원을 요청하였고, 포항구조대, 경북특수구조대 소속 30명의 잠수대원들이 3일간 투입되어 수색작업을 벌였다.

실종자는 사고 발생 7일 만인 10월 12일 오전 11시경, 반곡 저수지 하부 가장자리지점에서 보트 수색 중 발견되었으며 가족에게 인도되었다.



# 울산지부,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 참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듣고, 보고, 체험하는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가 열렸다.



▶ 김은하 강사가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방본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화재, 구조, 구급, 완강기 탈출 등 직접 울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의식 정착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해양안전체험장도 함께 마련되어 우리협회 울산지부가 참여하였다. 해양안전체험장에는 모형 선박과 구명뗏목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부터 선박과 구명뗏목에 탑승 시 행동요령에 대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지부 최주평 아라봉사대장은 “금번 행사가 울산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의 해양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구명뗏목 체험



▲ 모형선박 체험

# 안전을 부탁해

## 대국민 심폐소생술 캠페인

지난 12월 8일,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전망대를 찾은 대만 단체관광객 중 50대 남성 한 명이 입장 대기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부산타워 직원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센터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켰다.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직원은 매월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울산, 통영 등 전국에서 「대국민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총 20회에 걸쳐,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각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쇼핑몰 등에 공간을 마련하고 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들이 심폐소생술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

지난 11월 20일, 부산 대연역 2호선 역사 내에는 지하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협회 강사들이 모였다. 교육용 마네킹을 펼쳐놓고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권장하였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기까지는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다리를 구부리기가 힘든데 나도 배울 수 있는교?”

노약자들 중에는 팔, 다리, 허리 등이 불편해서 제대로 된 자세를 잡지 못하거나 힘이 부족해서 가슴 압박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강사들은 일반인과 다른 자세로 방법을 알려주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체조건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박성욱 강사가 무릎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맞춤형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 재난안전지도사 이명희 강사



진행한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전문강사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신체의 불편함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언제 마주칠 줄 모르는 응급상황!!

지난 10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양산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80대 할머니가 식사 중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때마침 그 자리에는 우리 협회 재난안전지도사 이명희 강사가 지인들과 식사 중이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이명희 강사는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119 신고 후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상태를 파악하고 기도개방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명희 강사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평소 교육했던 것처럼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할머니는 위급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강사인 나도 실제 위급 상황에 직면하니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곧바로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진행하였고, 인명을 구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다. 이번 일을 겪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교육을 하는 것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 꾸준함이 주는 변화!!

서울지부 소속 강사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대흥역 역사 내에서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기간 외에도 지난 3년간 서울 공덕역에서 매주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왔다.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사전에 교육 일자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금번 캠페인의 시작으로 서울지부는 장소를 ‘대흥역’으로 변경하였다.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마포구조대 김철재 대장은

“3년이 넘게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사람들의 인식은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다. 처음 역사에서 시작했을 때 강사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못 이겨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교육용 마네킹이 부족할 정도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하다”

아직은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낮지만 우리는 작게나마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령자까지 최초 발견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현장에서 꾸준함을 미덕으로 삼고 교육을 진행해온 많은 봉사자들의 노고가 연일 보도되는 기분 좋은 뉴스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좌)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교육 중인 울산지부

우) 대흥역사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중인 서울지부

# 환경을 부탁 海

## 특별한 이웃들과 함께하기

### 경남서부지부, 1년간의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

지난 1년간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부설립 이후 매월 해양환경정화작업을 해오던 경남서부지부가 지부의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단체의 동참을 이끌면서 그 의미를 더하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1년간 일궈온 작은 발자국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큰 캠페인이 되었고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빛났다.

인터뷰\_ 경남서부지부 김태균 사무국장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다.



◀ 지난 2월, 캠페인 제1호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  
우) 12월, 캠페인 제15호, 금년도 마지막 정화작업으로 ‘스카이아트’와 함께 진행

우리협회 경남서부지부는 매월, 통영시 일대 해안가에서 수중수변정화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무작위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마주하는 일은 매번 쉽지 않았다. ‘누군가는 하겠지, 내 일은 아니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며 지부만의 고민으로 끝나기엔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2018년 사업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통영시 수중수변정화활동을 시민참여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원들과 뜻을 모아 「통영시 해양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릴레이 1호는 2018년 2월, 가구제조업체인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대표 구학성)을 시작으로 총 15호까지 진행되었다. 기업, 단체, 동아리, 개인 등 자발적 외부 동참 인원만 500여 명을 넘어섰고 지부 대원까지 포함하면 연인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에 의미를 더하는 건 매회 에코적립금으로 10만원 씩을 기부하여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의미있는 모금활동

▶ 좌) 수거된 쓰레기들  
우) 경남서부지부 장종철 협회장이 모금기금을 강석주 통영시장에게 전달 후 기념촬영







수중수변정화작업 모습

등도 함께 전개되었다. 15호까지 진행된 캠페인은 총 150만원을 모금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모금된 기금은 지난 12월 12일 통영시청에서의 기금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정부지원금,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순수 민간 인력과 자본에 의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그 의미가 더욱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 변화의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설마 바닷속에 자동차라뇨? 일부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아닌가요?”  
 “경운기, 전동휠체어, 냉장고, 페타이어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저씨 바닷속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요?”

지난 1년간 경남서부지부가 캠페인을 진행해 오며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이다.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해안가들의 쓰레기들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원들은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쓰레기를 보며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변화를 가져온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나 이러한 활동에 성원을 입어, 금년도에만 국한된 캠페인이 아닌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다양한 단체들의 후원금 및 참여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경남서부지부는 지역사회와의 봉사단체로서 매년 명절 맞이 소외계층 나눔행사 및 김장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에 행복워터파크를 개장하기도 하였다. 내년에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영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에는 하계인명구조 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영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남서부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다각적인 활동과 모임을 주최하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초겨울 오후, 산양의 바다를 물들인 금빛보다 더욱 아름다운 통영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할 예정이다.



좌) 추석맞이 소외계층 나눔행사 (쌀 전달식)  
 우)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행복워터파크

#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한다

1000cc 미만 경차는 20% → 50% 할인,  
1600cc 미만 소형차는 20% → 30% 할인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관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천~7천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관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관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여객선 여객 운임 지원 구성〉

운임 구간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도서관 부담			
도서관 본인부담 상한액	5,000원	6,000원	7,000원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구성〉

대상 차량	2,500cc 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도서관 부담			
도서관 할인을	20%		
2019년 신규 적용 할인을	1000cc 미만 - 50% 1600cc 미만 - 30%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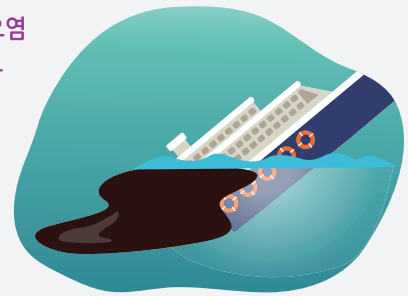
[출처 - 해양수산부]

# 해수부, 해양오염 평가·진단 정확성 높인다

## 15개 해양오염 항목 표준 분석법 신설 및 최신 분석기술 등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 공정 시험 기준'을 개정하여 12월 5일(수)부터 시행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오염 항목별로 분석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차를 줄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수질 44개 항목, 해저퇴적물 33개 항목, 해양생물 18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등 총 117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퇴적물 중 리튬(Li)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양생태독성 평가 분석법'은 해산규조류\*, 미역, 다시마, 참굴, 성게, 해산로티퍼\* 등 6가지 해양생물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 오염물질 중심으로 평가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물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해산규조류 :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국내 연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종

※ 해산로티퍼 :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양식어류의 먹이로 주로 활용되는 종

이 외에도, 자동분석기기를 활용한 해수 영양염 자동 분석법, 카드뮴·코발트·크롬·구리·납 등 다양한 미량금속을 동시에 분석하는 해수 미량 금속 동시분석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법을 포함하여 총 15개 해양오염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신설되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해양의 환경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수립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소비 시 위생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에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산물 저온유통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 수산물 구입 시 고려사항 : 신선도(32.3%), 원산지(16.2%), 가격(15.2%)

※ 평균 폭염일수 31.5일로 46년 만에 최고 기록, 초열대야 현상도 111년 만에 처음 발생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10. 26.)를 거쳐 구축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은 소비자에게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산업 전반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 ▲ 저온유통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 ▲ 저온유통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와 함께 1,9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제시하였다.

### <중점과제 1>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먼저, 수산물 양육에서 위판까지의 시간 단축과 품질 관리를 위해 자동선별기 설치를 지원하여 물류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톤(TON) 단위 어상자 경매 도입 등 위판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 통상 경매는 수산물 양육 후 20~25kg 어상자에 선별·입상되어 위판장에 진열·경매

위판장, 도매시장에는 저온경매장을 설치하고, 냉장·냉동창고 등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 간 저온운송을 위한 냉장·냉동차량을 지원하는 등 어종별·유통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점과제 2>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

도매시장에서의 별도 경매 및 저온유통 라벨 부착 등을 통한 차별화로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 수산물 품질인증 요건 등에 저온유통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군급식 등 공공단체 급식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저온유통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온유통 운영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산지위판장 및 도매시장 평가를 통해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중점과제 3> 저온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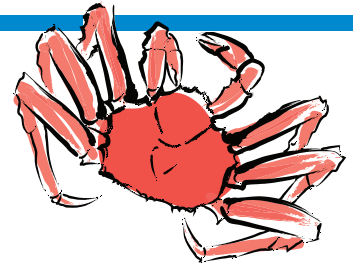
수산물 부류별(활어·선어·냉동 등) 보관 온도기준과 운송수단 및 수산물 유통시설의 저온유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도매시장 등에서 수산물 저온유통을 운영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 지침’도 작성하여 관련 업계와 유통종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어업인·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품질·위생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저온유통 전문가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과제 4> 저온유통 연구개발(R&D) 활성화

수산물의 저온유통 실용화기술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양육·선별 및 냉장·냉동보관 기술 등 스마트 유통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지표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은 그 어떤 식품보다도 선도 관리가 중요한 식품이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의 세부과제를 착실히 이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어업인·유통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12월~다음해 5월)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 · 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 금지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및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대게 유통 ·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 · 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제보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한 후, 1 : 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 · 위치 · 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하여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대게 유통 · 판매 카카오톡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http://eastship.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6월~11월),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2015~2017)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 · 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육 ·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협회교육안내

# 2019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수상구조기술향상과정」의 일환으로

2019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구조사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개요

- 과 정 명 :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 주 관 : 한국해양구조협회
- 교육대상 : 수영 100m 이상 가능한자, 해경특공대(경찰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
- 교육 및 접수기간 : 연중 주말/주중반 운영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교육인원 : 과정별 각 40명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 교육장소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회의실 및 수영장
- 교 육 비 : 금500,000원 (수협 1010-1020-6229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영장입장료 포함
- 최초접결지 : 부산사직실내수영장 내 117호 강의실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세면도구, 필기도구, 증명사진(1장)

### ■ 주요사항

-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본 교육기관에서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64시간만 진행하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교육수료하신 후 개인이 직접 해양경찰청에 신청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상구조사 교육(64시간) 미 이수 시 추가 보충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보충교육 일정은 교육상황(미 이수자 및 강사섭외 등)에 따라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교육시작일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수강취소를 원하시면 교육 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항

- 문 의 : T. 051-714-3122, F. 051-714-3095, E. kmrc119@hanmail.net
-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http://www.marsa.or.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imsm.kcg.go.kr>

## 협회교육안내

# 2019년 『인명구조요원』 교육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육성

### | 2019년 교육계획 |

#### ■ 개요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관할 지역 실내수영장
- 대 상 : 요원 -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강사 - 요원 자격이 있는 자
-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40시간), 인명구조강사(60시간)
- 준 비 물 : 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 세면도구,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요원 20만원 / 강사 30만원
- 교육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16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법 (24시간) / 구조영법, 종합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인명구조 교수법 (20시간) / 기본인명구조술, 장비구조술 등

- 자격명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2014-1485)  
인명구조강사(2014-5724)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흥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협회교육안내

### 2019년 『재난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재난·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 2019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주말반, 평일반)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3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동화, 사진2매
- 교 육 비 : 1급 30만원 / 2급 10만원 / 3급 5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재난안전의 의미(8시간)
  - 위급시 행동요령 및 구조구급 (8시간)
  - 재난안전 교수법 (50시간)

- 자격명  
재난안전지도사(1급/2급/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372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흥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2019년 『해양안전지도사』 교육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 2019년 교육계획 |

■ 개요

- 기 간 : 2019년 1월~ 12월
- 장 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대 상 : 1급 - 고졸 이상의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2급 - 제한없음
- 준 비 물 : 필기도구, 활동복, 활성화, 사진2매, 수영복, 수모, 수경
- 교 육 비 : 1급 30만원, 2급 10만원
- 교 육 비 수납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 불 : 시험 하루 전날까지 100% 환불
- 교육과목
  - 해양안전· 생존 등 해양사고예방의 의미(8시간)
  - 선박화재, 충돌, 침수 등 위급 시 행동요령(8시간)
  - 해양안전· 생존 등 교수법(50시간)

- 자격명  
해양안전지도사(1급/2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2015-002815
- 기관정보  
기관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대표자 : 민흥기  
연락처 : 051-714-3695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56번길 93 (용당동)  
우) 48562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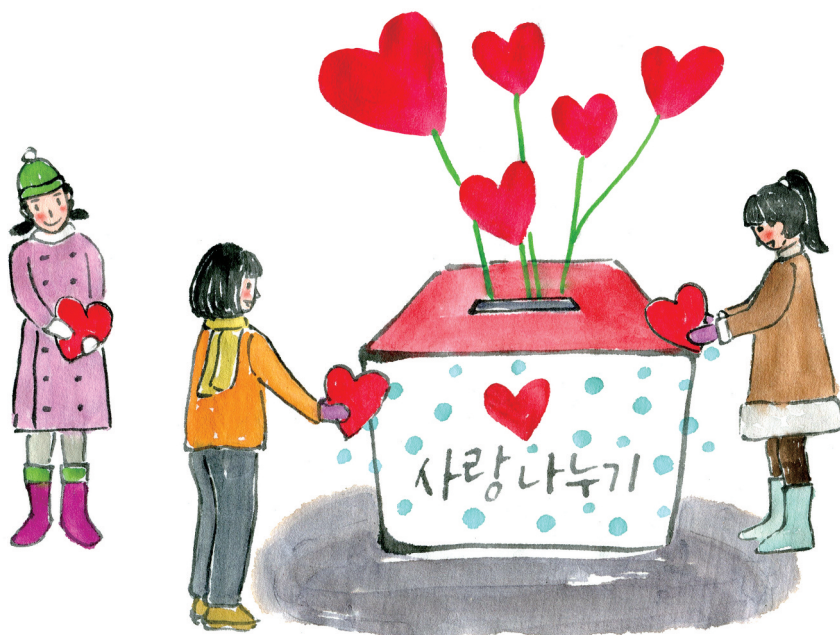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kmrc119@hanmail.net |





# 2019년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 수강생 모집 안내



###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

###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64시간) 후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 평가과목

구분	세부항목
영법	잠영, 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각25m 1분 45초 이내)
수영구조	맨몸구조, 장비구조, 잡힘탈출
종합구조	머리지지/턱고정, 스컬링, 익수자운반, 구명뗏목사용법, 입영 등
응급처치	성인 CPR, 의료장비, 소아/영아 CPR



###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해경특공대(경찰 공무원 희망자), 생존수영강사 활동희망자, 실내수영장, 워터파크, 해수욕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에 안전요원으로 취업희망자들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음.



### 교육과정 안내

교육기간	연중 주중/주말반 운영
접수방법	전화접수 (T.051-714-3122), 홈페이지 접수확인 후 교육비 납부
교육인원	과정별 각 40명(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마감)
교육장소	부산사직실내수영장(부산)
교육비	금500,000원 (교재비, 시설이용료 경비 포함, 숙식비 본인부담)
문의처	한국해양구조협회 T. 051-714-3122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www.marsa.or.kr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n.kcg.go.kr



해양경찰청지정 교육기관  
한국해양구조협회

가장 좋은 CPR은

# bestCPR



**알리고**  
Rligo AED 트레이너® T200

- ▶ 패드 부착 위치 LED 표시 및 교환용 패드 사용
- ▶ 모든 커넥터 연결방식 적용
- ▶ 일시정지 및 음량조절 기능
- ▶ 다국어 지원
- ▶ 교육에 편리한 전용 리모컨
- ▶ AHA '2015년 가이드라인' 적용 제품



**누르고**  
Nurugo CPR 마네킹®

- ▶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인체에 가까운 2중 관절 목구조
- ▶ 심폐소생술 품질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되먹임 기능
- ▶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 ▶ 더 정확한 AED 패드 부착 기능

